

I. 에스라서의 배경

에스라서는 역대기하 이야기의 연속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70년 포로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부터의 두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돌아 온 것과는 달랐다. 첫번째는 전 이스라엘이었지만, 두번째는 남은 자만이 바벨론을 떠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수롭바벨이 이끈 첫 번째 귀환과(1-6) 그 백성이 영적 상태를 재건하기 위한 에스라가 이끈 두 번째의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다루고 있다(7-10). 이 두 번의 귀환의 설명 사이에는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왕후로 살고 다스린 거의 60년의 간격이 있다. 에스라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민족의 종교를 재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II. 에스라서의 명칭과 저자

1) 명칭

에스라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뜻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권으로 묶여 있었다. 그 이유로 역대상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의 지속적인 이야기로 보였기 때문이다. 70 인역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Esdras Dercteron, '두번째 에스드라'로 번역하였다.

2) 자자 = 에스라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남은 자로 돌아온 두 번째 그룹의 지도자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라는 증거가 충분하다. 에스라는 학사이고 율법학자이고 제사장이며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 포로생활 이후의 신앙의 부흥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한다. 느헤미야를 위시한 여러 훌륭한 사람들과 동역한다.

3) 저작연대: 주전 444년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와 그의 동시대인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되었다. 이 시기는 Artaxerxes 1 세(주전 464-423)와 다리우스 II세(페르시아), (느 12:22) 통치때였다. 에스라는 왕의 제 7년(스 7:8) 주전 458년후 예루살렘에 돌아올때였으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느 1:1)의 20년 주전 445년에 귀환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왕 32년에 바벨론으로 돌아갔는데(느 13:6) 이는 주전 433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전 444년 이후인, 주전 433년과 424년 사이였을 것이다.

III. 에스라서의 주제

에스라서의 주제는 예배 (새성전 건축의 중요성)와 모세의 율법인 (7:6) 토라의 지킴으로 여호와께 성실함이다.

에스라서의 목적은 1) 역사적인 목적은 에스라와 느헤미아서의 역사적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에 의한 성전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기록하는 것이다. 2) 교리적 목적은 유다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0 년후에 땅과 예루살렘이 종교적 중심이 될 것을 약속하셨으며(렘 25 장) 그는 그의 약속을 지키셨다. 더욱이 역대서와 에스라서는 제사장 에스라의 유대 민족의 전 생활에 성전예배의 구심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또다른 분명한 교훈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느 8 장). 3) 기독교적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손들이 살 것이며 그들 중에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셨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송환하심으로 그 소망이 성취되도록 지켜 주시는지를 보여 주신다.

IV. 에스라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 그리고 핵심 장

- 1) 핵심 단어 : 성전
- 2) 핵심 절 : 1:3, 7:10
- 3) 핵심 장 : 6 장. 에스라 6 장은 유월절을 지키며 그 땅 백성들의 더러움에서(6:21) 그들 자신을 구별되도록 남은 자의 헌신을 독려하며 성전의 완성과 봉헌을 기록하고 있다.

V. 에스라서의 구성

에스라서는 정확하게 역대하에서 끝나는 이야기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준다(렘 29:10-14).

그 구성은 먼저 민족의 종교적 중심의 회복(1-6 장) 과 돌아온 자들의 종교 개혁이다 (7-10 장). 먼저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의 주된 목적과 의무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다.

바벨론으로부터 남은 자의 귀환 (1-2 장)으로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준비하고 (1 장) 모두 49,690 명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다 (2 장).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을 성경은 '남은 자' 로 부르는데 그들은 장막절을 지킨다.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한 후 곧 성전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3 장).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로부터의 반대가 심했는데 그들의 거짓 고소로 페르시아의 왕이 그 재건을 중단시킨다 (4 장). 하지만 남은 자의 성전 완성 (5-6 장) 한다. 학개와 선지와 스가랴의 강력한 역사 아래 남은 자들은 그들의 반대를 극복하도록 권면을 받으면서 성전을 완성하였다. 다리오왕은 고레스왕의 조서를 다시 발견하고 성전 건축사역은 다시 시작되었다(5 장).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한 조서가 발행되었으며 성전 건축은 주전 516 년에 완성되었다 (6 장).(에스라 6 장과 7 장 사이에는 100 여 년간의 간격이 있으며 이 기간의 사건은 에스더서에 기록되었다 (주전 486-464).

두번째 유다 민족의 종교생활의 개혁이다. 포로 귀환 후에 몇 세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매우 침체되어 있었다. 국가를 부흥시키려는 성실한 남은 자와 제사장 에스라의 귀환은 그들의 신앙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1) 먼저 아닥사스다의 선포 (7 장)로 율법의 서기관 에스라와 2 천여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집을 짓기 위해 왕을 감동케 하셔서 기록된 권위와 왕으로부터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셨다. 2) 남은 자의 예비 (8 장)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 중에 1,750 명이 계수되었다.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2) 에스라의 중보기도 (9 장)으로 다니엘서 9 장에서처럼 에스라 9 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중에 하나이다. 에스라는 자신을 그의 백성의 죄와 동일시하였다. 2) 유대인들의 종교개혁 (10 장)이 일어난다. 에스라의 고백과 중보의 위대한 기도를 이어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

우리는 에스라의 시대에 주셨던 그 부흥의 역사를 남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남은자 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